

## 성경 예언 해설집 <16회>

### 이사야

(지난호에 이어서)

#### 죽은 자를 살리는 주의 이슬

본 문(사 26장, 27장)

여호와여 임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임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이다.(사 26:17-18)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이다. 내 백성이 같지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시라(사 26:19-21)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사 27:1 이하)

#### 해설

17절, 18절의 말씀은 역대 성인들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구원을 이루려고 산기(産期)가 임박하여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여인같이 몸부림쳤으나 생산한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다는 탄식이다. 19절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

룬 승리의 기쁨이나 사랑을 이기고 영생의 길이 열릴 것을 노래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가 일어나고 땅이 죽은 자를 내어준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이 깨어 노래하라.” 하였으니 성경 전체를 상고하여도 위의 말씀같이 통쾌하고 영광된 말씀이 없다.

이처럼 사랑의 명예를 벗어날 수 없는, 티끌에 거하는 죄인들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은 주의 이슬, 빛난 이슬이 임함으로 죽음의 옥문이 열려 광명의 생명의 세계가 전개되는 것이다. 호세아서 14장 5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긴자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 세상에 나타나면 영생길이 열리는 것이다.

주의 이슬을 베푸는 이긴자가 구원의 역사를 하고 있을 때 원수 마귀의 세력이 최후 발악을 하는 것이다. 다니엘서에 수차 기록한 말씀 가운데 구원을 베푸는 기록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서면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짐승(마귀)이 성전을 짓밟는다고 하였고 계시록 11장에는 감람나무 선지자가 증거할 때에 짐승이 선지자와 싸워서 이기고 선지자가 죽었다가 3일 반이 지나 부활한다고 하였고 이사야 41장에 동방 의인이 역사할 때 원수의 세력이 홍수같이 물려오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치는 자들과 너와 싸우고 다투는 자들이 망하고 없어진다는 말씀이 있듯이 이사야서 26장과 같은 맥락이니 계시록에는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하

였는데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일시적으로 짓밟히는 장면을 말한다. 20절은 위의 말씀과 똑같은 뜻이다.

“내 백성이,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이다.” 하였으니 이 말씀이 94년도 이긴자가 당하는 고난이니 영여(圓圖)의 몸이 되어있는 것은 마귀가 분노하는 기간이니 성경 모든 말씀을 종합하여 보면 피할 수 없는 최후 결전이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패하는 듯하고 후퇴하는 듯하나 다시 이기고 원수를 심판하는 장면이 21절에 약속되어 있으니 폭풍우를 만나 밀실에 숨어 있으나 마귀가 분노하는 기간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는 3년 반, 한때 두때 반 때, 1천2백60일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숫자는 오늘의 이긴자의 고난 기간을 말함이니 원수 마귀가 하늘의 사람을 정죄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이긴자가 밀실에서 나와 다시 붉은 용 마귀를 죽이는 장면이 27장 1절이니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바다의 용을 죽인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싸움이 끝나는 완전 승리가 되는 것이다.

#### 광야와 사막은 구원의 장소

본 문(사 35:1~10)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이다.(중략)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源泉)이 될 것이며 시랑(豺狼)의 늪된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大路)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하니 깨닫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다. 우매한 자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새나운 짐승이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와 속랑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화관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사 35:1~10)

#### 해설

35장의 기사를 지금까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역대 왕들의 범죄로, 예루살렘 시온이 이방 민족에게 점령당하여 폐허가 되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와 사막 같은 저주받은 곳이 되었다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권고하여 외국에 흩어져 있던 당신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므로 조국을 다시 찾은 백성들이 기쁨의 찬송을 부를 장면을 이사야가 예언하였다고 해석한다.

또 다른 해석은 예루살렘의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총만하게 받은 사람이 심령의 변화를 이루어 광야와 사막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동산으로 화하여 백합화같이 되고 메마른 심령이 신령한 샘물이 솟아나고 시냇물이 흐르듯 은혜의 강물이 흐른다는 해석인데 예수교 신학자들이 예수를 믿고 중생한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라고 하였다.

유대교가 소망하는 땅의 예루살렘 회복으로 시온의 영광이 만방에 비치는 것을 가리킨 것일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중생한 사람을 가리킨 것일까. 이사야의 기사 중에는 광야와 사막이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 기록된 고로 35장과 40장에 기록한 광야와 사막을 긴 세월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예루살렘이 재건되어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유대교는 확신하고 있다.

예수교는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가 세상에 구세주로 왔다고 요단 강변 들에서 증거한 요한의 음성으로 해석하였다. 신약 복음서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였으니 이사야가 예수를 위하여 예언하였다고 증거하여 지금까지 예수교 신자들은 이사야의 예언은 전부 예수를 위한 예언이라고 믿고 있다.

유대교나 예수교의 주장대로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그들의 믿음대로 될 수도 있으나 선민의 축복과 권세는 이미 단지와 자손에게 옮겨진 고로 선지자들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권고하여 외국에 흩어져 있던 당신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므로 조국을 다시 찾은 백성들이 기쁨의 찬송을 부를 장면을 이사야가 예언하였다고 해석한다.

또 다른 해석은 예루살렘의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총만하게 받은 사람이 심령의 변화를 이루어 광야와 사막

주신 것은 사도 요한의 글(계 2장-3장)에서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 그 중에 “이긴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줄 터인데 돌위에 새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알 자가 없다”고 하였다.(계 2:17)

흰 돌 위에 쓴 이름이란, 이긴자의 입에서 증거하기 전에는 알 수 없었으나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 신기하고 한편 알고 보니 쉽고 타당한 말씀이다. 흰 돌 위에 쓴 글자는 우리말로 흰 돌이요 한자로는 소사(素砂)요 백석(白石)이다. 이긴자가 소사 땅에서 역사하고 있으니 흰 돌을 이긴자에게 주겠다는 예언대로 소사를 이긴자에게 주신 것이니 이곳에 승리제단이 세워지고 은혜의 샘이 솟고 은혜의 시냇물이 흐르고 있다.

중동 지방은 사막지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인 들가 많은 관계로 선지자들의 기사 중에는 광야와 사막의 기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사막은 흰 돌이니 모래 땅을 백사장(白沙場)이라고 말을 한다.

이사야는 사막에서 샘이 솟고 시냇가 흐른다고 하였고 거기에 대로가 있고 그 길을 거룩한 길, 구원의 길이라고 하였다. 구속함을 얻은 자가 가는 길이요 불의한 자는 그 길에 행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사야가 말한 사막은 흰 돌이요 흰 돌을 받은 자, 이긴자가 있는 소사를 가리킨 것이니 글을 쓴 이사야도 당시 한반도 소사를 알고 기록하지는 못하였다. 흰 돌은 글자를 조각한 비석이 아니다. 흰 돌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이 예비되고 거룩한 길,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다.\*

- (다음호에 계속)  
차승도

##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하나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

### 1면에 이어서

세 번째로 요한복음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관한 단락(요 14-17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영생에 이르는 구원론으로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야 구원이다.”라는 구절에 있다. 구세주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경지에 이른 자이다. 예수는 구세주 자격의 미달자이기에,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 수 있는 방법을 논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되신 진리의 영이 오시는 그날이 오게 되면 비로소 “구세주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구세주를 영접한 구원 받는 자 속에 구세주가 계시고 구세주 속에 구원받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비결

그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이

긴자 조희성님의 설교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비결)을 가르쳐주시는 대목을 찾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람이 경험한 대로 이제 그대로 온전히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에게 맡기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가 되면서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이 하나님이 되는 거야,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고로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줬는데도...” - 1992.1.11. 이긴자 말씀에서 발췌

“오늘날 영생의 길이라는 건 마음의 길이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고로 하나님의 마음은 영생의 확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희생적인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 속에 있는 마

음인 고로 우리는 하나 속에 내가 있고 하나 속에 바로 내가 있고 하나 속에 하나님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속에 바로 내가 있어야 하나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하나 속에 천국이 있고 천국 속에 바로 내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오늘날 온 우주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구세주가 온 것이지, 구세주가 여러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닌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온 인류를 나와 내가 없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누구든지 나처럼 하나로 만들 때에 이 세상은 천국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하나 속에 천국이 있고 천국 속에 하나가 있는 고로 하나 속에 하나님이 있는 고로 그런고로 하나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올시다.” - 2002.2.2. 이긴자 말씀에서 발췌

### 하나님에 내 안에 있게 되는 비결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법을 가르쳐주시는 구세주 조희성님의 온전한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다.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구세주 하나님을 초조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는 자유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경지에 이른 자만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고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되고 나의 마음속에 천국을 이룬 나 자신은 반드시 영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율법을 지키는 것도 ‘나라는 주체의식이 지키려고 하면 영생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구세주께서는 세계 만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상에 승리제단을 세우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승리제단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이슬 성령의 살마광선(殺魔光

線)으로 사람들 각자 속의 ‘나리는 주체의식을 제거해주시니, 비로소 구원받을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참나(眞我)가 되어 자유율법을 지켜주시게 되니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 보혜사 성령을 부여주시는 주인공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또 다른 새로운 말씀을 한다.”라고 했는데, 구세주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므로 바로 구세주가 나오기 전에는 보혜사 성령이 없는 것이다(1991. 11. 27. 이긴자 말씀에서). 오늘날 구세주 조희성님은 새로운 말씀이 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결>을 온전히 설교하신다. 물론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성경이나 불경에 쓰여 있지마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결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되어 있는 것이다.

구세주는 또 다른 새로운 말씀을 할 뿐 아니라 실제로 인간 속에 있는 마귀의 피를 소멸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부여

줌으로 말미암아 바로 죄가 소멸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불로도 임하고 생수로도 임하고 이슬로도 임해서 완전히 죄의 뿌리가 되는 마귀를 소멸시키는 것이올시다. 이제그대로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핏속에 있는 마귀의 영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죄 타는 냄새가 나면서 바로 온몸이 뜨거워지는 불성신의 체험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서 생수가 임하는 것은 바로 생수로써 더러워진 피를 전부 씻어내기 위한 것이며, 그런고로 이제 그 피가 맑고 깨끗한 피로 화해지는 고로 하나님의 피로 이제 이루어지는 고로 그런고로 하나님의 신이 거할 수 있는 이제그대로 그러한 조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이슬성신이 임하는 것이올시다. -(중략)- 이슬성신이 임함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가는 과정이죠? 그런고로 이슬성신이 임하면서 바로 소변으로 시켜면 썩은 피가 쏟아져 나가면서 바로 완전히 하나님의 피로 바뀌지는 과정이죠?” (1991. 11. 27. 말씀)

백태선 기사



###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41>

#### 참성대(瞻星臺)와 미륵불(彌勒佛)\_2-2

참성대는 높이 9.108m, 밑지름 4.93m, 윗지름 285m, 밑에서 416m 되는 곳에 정남쪽으로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창문을 네 변 모양의 구조이다. 참성대에 대한 기록은 일연이 기록한 『삼국유사』에 나와 있다. “선덕여왕 대에 돌을 다듬어서 참성대를 쌓았다는 기록이 있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 참성대가 불교에서 주장하는 최고의 이상향으로 제시되는 수미산(須彌山)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

##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41>

는 이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즉 참성대는 처음부터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들이 행하였던 제천사상과 불교의 사상이 함께 어우러져 축조된 신전(神殿)의 개념이 있으며 고도의 예술적 결작품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성대는 그 외형부터 불교의 수미산도(須彌山圖)를 참조하여 보는 것과 같이 모양이 같은 것이다. 즉 이러한 사실이 지금의 모습을 갖춘 참성대의 축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저변의 사상 역시 불교의 수미산도와 우리 민족의 제천의식과 동일한 것이다.

참성대의 제일 윗부분, 즉 정자석은 그 모양이 우물 『井』자의 모습으로 되어 있

다. 이러한 사실은 참성대의 제일 상층인 28층에 우물을 상징하는 정자석을 놓은 것은 『하늘의 우물(天井)』이라는 뜻이며 하늘의 우물을 통하여 미래의 구세주인 주인공께서 오실 것을 알고 참성대를 건설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앞장의 수미산의 모습을 그린 정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33천인 도솔천의 내원궁이 보이고 이 내원궁에 있는 용화수(龍華樹)가 보이는데 미래의 부처님이신 미륵부처님께서 이용화수 아래에서 도를 닦으신 후 인간계(人間界)로 하강(下降)하여 강림(降臨)하시는데 이때는 수미산 정상의 한 가운데 있는 수미산정(須彌山井)을 통하여 강림하신다고 한다.

이런 이치로 참성대는 전체의 모습이 수미산의 모양을 상징하는 형태로 축조되었으며 수미산의 정상에 있는 천정(天井), 즉 수미산정(須彌山井)을 상징하는 형태가 참성대에서는 정자석이요 정자석이 곧 수미산의 우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물정(井)자 형태로 얹힌 것이다.

또한 사진 우측의 참성대의 북쪽 면을 자세히 보면 기초석을 뺀 나머지부터 정자석까지 탑은 28층으로 돌로 쌓아 이루어 있는데 이것은 28수(偈) 즉 별을 상징하는데 한자에서 별이라는 것이 곧 북두칠성을 의미하므로 참성대의 외관은 별의 상징인 28층으로 축조된 것이다.

또 참성대의 출구는 남쪽을 향하여 오



청와대가 국민의 품으로 개방되던 날을 맞추어 생미륵부처님이 탄강하신 김포 하늘에 무지개가 뿔다(2022. 05. 10 촬영)\_사진 출처: https://blog.naver.com/any2201/222727887501

직 한곳만 있다. 이는 현재의 대통령 관저가 있는 청와대나 조선조의 왕궁이나 큰 사찰의 대웅전 등 절대 권력 내지는 권위를 상징하는 이 모든 것은 북쪽을 향해 배치가 된다. 그리고 사극이나 영화에서 보면 신하한 자들 중 귀양이나 외지에 근무

明鐘